



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목장교회 나눔지

5월, 마음에 새기는 말씀 -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은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어이다.

얼음 깨기

“내가 그니라”

옛날 어느 마을에 엄격한 법을 세운 통치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든 법을 어기면 채찍 50대를 맞으리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범죄자로 잡혀온 사람은 다름 아닌 통치자의 눈먼 노모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통치자가 법을 굽힐지, 어머니를 때릴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통치자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대로 집행하라!” 집행관이 채찍을 들려는 찰나, 통치자는 보좌에서 내려와 어머니를 뒤에서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등에 채찍을 맞으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니의 죄는 인정하지만, 매는 내가 대신 맞겠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하시며 스스로 매를 맞기 위해 나아가셨습니다. 우리가 맞아야 할 정죄의 채찍을 주님이 자원하여 대신 맞으심으로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나눔] 날 위해 대신 채찍을 맞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희생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경배 찬양

오직 예수 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 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연결된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소식

1. 5기 더가족세미나

‘진실한 공동체를 향한 첫걸음’ 6기 과정에 대한 더가족세미나 5기가 5월 10일(주일)부터 4주간 오후 5시 3층 본당 레위의 장막에서 진행됩니다. 하나님 나라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는 여정에 함께해주세요.

2. 홀리빛키 플라마켓 물품 요청

5월16일(토) 만성동 어린이들에게 즐거움을 선물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집에 고이 정리하여 보관하고 있는 아이들 용품을 기부해주세요. 어떤 아이들에게는 꼭 가지고 싶고, 필요한 물건일 수도 있을테니까요. 사무실 앞 상자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행사

5월

1-5일	더함공동체 태극 단기선교
3일	어린이주일
10일	어버이주일
	더가족세미나 5기 개강
16일	홀리빛키(어린이페스티벌)
23-24일	더함공동체 여름수련회
30일	어와나 지역 올림픽
31일	더가족 세미나 5기 종강

6월

7, 14일	풍습초 이끄미 세미나 5기
14일	어와나 1학기 종강
15-17일	어와나 EBS
20일	더깊은 선교학교 개강 / 결혼예비학교 개강
26-28일	더원공동체 여름수련회

선교

[박영주 선교사]

캄보디아

- 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 캠뽕스프 더여호수아 센터에서 시작된 주일 예배와 평일 방과후 학습이 잘 이루어지도록
- 박영주 선교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소서
- 어린이 사역을 총괄하고 있는 김송희 선교사에게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시고 감당할 체력과 지혜를 주소서

한 문장 큰 울림

“신앙이란 안개가 자욱한 길에서 등불을 든 주님의 손을 잡고 한 걸음씩 내딛는 용기다.”

- 코리 텐 톰 -

[창세기 39장 1-10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지점들을 마주하곤 합니다. 계획했던 길이 어긋나고, 정직하게 살았음에도 억울한 상황에 처하며, 간절한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듯한 ‘해석 불가 구간’ 말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때 신앙의 회의를 느끼지만, 사실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내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렌즈’로 재해석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1. 진정한 형통, 상황의 호전이 아닌 함께하심

성경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 간 절망적인 상황에서 역설적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선포합니다(창 39:2).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형통은 사업이 번창하고 질병이 치유되는 등 눈에 보이는 ‘성공’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본질은 ‘여호와께서 함께하심’ 그 자체에 있습니다. 요셉은 노예였고, 이후에는 죄수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셨기에 그는 이미 승리자였습니다. 여기서 ‘형통’으로 쓰인 단어는 ‘뚫고 나감, 돌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장애물을 뚫고 당신의 꿈을 향해 요셉의 인생을 밀어붙이고 계셨던 것입니다.

[나눔] 내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히 행복하고 형통하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눈 앞에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2. 유혹과 시련 속에서 지켜내는 거룩한 정체성

요셉에게 찾아온 보디발 아내의 유혹은 단순한 성적 유혹을 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치명적인 시험이었습니다. 요셉은 아무도 없는 은밀한 공간에서도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라며 코람데오(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는 죄와 싸우기 위해 옷을 버려두고 현장을 탈출하는 단호함을 보였습니다. 요셉의 ‘옷’은 여러 번 벗겨졌습니다. 채색옷이 벗겨지고 노예의 옷을 입었으며, 이제는 죄수의 옷을 입게 될 처지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보이지 않는 정체성의 옷만은 결코 벗지 않았습니다. 겉모습은 세상에 의해 좌우될지 몰라도, 우리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께 고정되어야 합니다.

[나눔] 세상의 유혹이나 이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죄의 자리에서 단호히 도망쳐야 할 영역은 무엇입니까?

3.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지만, 요셉에게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철저한 침묵의 12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침묵을 ‘버려짐’으로 해석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자신을 이집트라는 큰 무대의 중심(왕의 감옥)으로 이끌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훗날 총리가 된 요셉은 형들을 만났을 때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창 45:7-8). 인생의 주어를 ‘형들의 악행’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바꾼 것입니다. 이 해석의 전환이 있었기에 그는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과거의 상처로부터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지문에도 도무지 읽히지 않는 ‘해석 불가 구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통의 점들을 연결하여 결국 구원의 선(Line)을 만드십니다.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그 길을 걷게 하십니다.

[나눔] 지금의 고통을 단순히 ‘내가 당하는 시련’으로만 보지 않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나를 먼저 훈련시키시는 과정’으로 해석해본다면, 오늘 나의 기도는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요셉은 훗날 형들에게 고백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창 45:8) 12년의 고난을 ‘하나님의 먼저 보내심’으로 해석한 순간, 요셉은 과거의 상처에서 자유로워졌고 민족을 살리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해석 불가한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확실한 손길로 우리를 빚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뿐이네”라고 고백하며, 내 삶을 하나님의 선하신 눈으로 재해석하는 진정한 형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눔	[바닥에서 하늘을 보다 / 창세기 39장 1-10절]을 통해 받은 은혜와 삶의 적용 점을 나눕니다.	
	함께 하나님나라를 세우기며 말씀을 비추하고 기도를 쌓아가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진정한 형통	막막한 현실 앞에서도 나를 향해 돌진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걷게 하소서.
	거룩한 옷을 지켜	세상의 유혹을 위해 성도로 정체성을 내던지지 않고 주신 거룩함의 세마포 옷을 끝까지 지켜내게 하소서.
기도	신앙의 해석력을 주소서	이해가 안되는 해석불가 구간을 만날 때 원망과 불평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읽어내는 능력을 주소서.